

2010년 6월 12일 시행 서울시 지방직 한국사 B책형

(서울시 문제는 수험생의 기억력에 의한 복원이므로 문제원본과 다를 수 있으면 그럴 경우
답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선우쌤 총평 : 이번 서울시 문제는 3, 4문제를 빼고는 자주 본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나와 답을 찾는 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다. 결국 공부를 어느정도 한 수험생들은 기본적으로 80점에서 시작될 것이다. 결국 출제자는 2010년 국가직과 시험과 마찬가지로 문제 변별력을 위해 과거 고시 스타일의 지엽적인 문제(대한제국의 군비 증강 사업, 고려 후기 정국의 동향, 안중근 순국한 해 사건)를 통해 문제의 난도를 높이려고 하였다. 이런 경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로 정말 문제 수준을 높여 변별력을 도모하여야 하는데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제시하여 한 두 문제는 요행으로 찍어야 되는 문제였고 이 요행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게 되었다.

■ 2010년 문제 시대별 분석

역사인식	1	기록으로서의 역사와 사실로서의 역사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	2	청동기, 초기 국가(부여, 고구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고대사회	2	신라 6세기		통일신라의 토지제도	
중세사회	3	• 초기 대외 관계 • 후기 정국 상황			지눌
근세사회	5	• 초기 대외 관계 • 봉당정치	사회정책	농업	국조오례의
근대사회 태 동	5	• 19세기 세 도정치 • 훈련도감 • 대원군 • 대한제국의 군비증강사 업순서	사회 변화		
근대사회 발 전					
민족독립운동 기	1	1910년 사 건			
현대사회	1	• 통일정책 (7.4남북공동 성명)			

1. 고려의 대외 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남송은 연려제금책(聯麗制金策)을 수립하고 요나라와 금나라의 분쟁에 고려가 개입하기를 희망했다.
- ② 광종은 후주의 사신이 온 것을 계기로 백관의 의관을 독자적인 제도로 고치는 등 혁신정치를 단행하였다.
- ③ 고려의 외교교섭은 외왕내제(外王內帝)였다.
- ④ 원효의 기신론소는 금나라에 반포되었다.
- ⑤ 고려와 일본의 물자교류가 활발했던 것은 현종 때였다.

답 ③

연려제금책(聯麗制金策), 외왕내제(外王內帝) 같은 한자용어로 수업생들이 어렵게 느꼈던 문제였다. 그러나 한자를 하나하나 풀면 오히려 그 뜻이 보이는 문제였다.

① 남송은 연려제금책(聯麗制金策), 즉 고려와 연합하여 금을 제어하려한 정책이란 의미로, 요와 금과의 분쟁이 아닌, 금과의 분쟁에서 고려가 개입하기를 희망하였다. 이 사실을 모르더라도 묘청의 금국정벌론 주장 당시 김부식이 했던 말(‘지금 금을 치는 것은 송에게만 유리하니 금에게 사대를 취하자’)을 떠올리면 좋겠다.

② 광종은 후주의 사신이 아닌,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개혁을 단행하였다.

③ 외왕내제(外王內帝)란 밖으로는 왕을 칭하면서 안으로는 황제국의 체제를 지향하였다는 의미이다. 사실 고려는 중국과 책봉관계를 맺었으나 중국에 의존한 나라가 아니라 사실상 자주성을 강조한 나라이다. 그 예가 광종이 칭제건원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황제라고 한 점이다.

④ 원효의 기신론소는 요나라에 반포되었다.

⑤ 고려와 일본은 외교관계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물자교류가 활발하지 못했다.

■ 2010년 선우한국사 올인원 단과 보조문제편 4 지문내용-고려는 책봉이념을 수용하는 한편 자기중심적인 천하관을 견지함으로써 실리외교를 추구할 수 있었다.(0)

2. 다음 제시된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루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 10여 인과 약속하였다.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산림에 은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항상 선을 읽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고,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어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한다. 인연에 따라 성품을 수양하고 평생을 호방하게 고귀한 이들의 드높은 행동을 좇아 따른다면 어찌 통쾌하지 않겠는가.

① 아미타를 전도해 불교의 대중화를 도모하였다.

② 철저한 수행을 선도해 교·선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했다.

③ 홍왕사를 근거해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다.

④ 유불일치설과 심성의 도야를 강조했다.

⑤ 법화 신앙을 중점으로 백련 결사를 제창했다.

답 ②

지문은 지눌의 「권수정혜결사문」 중 일부이다. 이 문제는 정말 자주 출제된 문제라 쉽게 답을 찾았을 것이다.

■ 2010년 선우한국사 이론편 p 272 내용

3. 다음 중 고려 후기 정국에 대한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기구인 참의부-4사 체제로 개편되었다.

② 충렬왕과 충선왕의 계승은 원나라 무종의 옹립과 관련이 있다.

③ 원의 기황후 세력이 충혜왕 정권을 위협했다.

④ 공민왕 12년, 홍왕사의 변을 계기로 외척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⑤ 충목왕 때 정치도감에서 활동한 정치관은 대체로 한미한 가문의 출신이었다.

답 ④

공민왕은 자신의 측근 세력이었던 김용이 일으킨 ‘홍왕사의 변’ 이후, 어느 권력에도 연루되지 않은 한미한 집안 출신인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개혁을 시도하였다.

■ 2010년 선우한국사 이론편 p 224~225 고려 후기 정치 변화 내용

4. 왕명에 따라 신숙주 등이 국가 왕실의 행사에 대한 의식의 절차를 규범화해 편찬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국조보감 ② 사성통고 ③ 국조오례의 ④ 내각일력 ⑤ 해동제국기

답 ③

이 문제 역시 어느정도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고민없이 답이 나왔을 것이다.

■ 2010년 선우한국사 이론편 p 377 조선 전기의 율리서 내용

5. 다음 중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명나라와 태종 이후로 관계가 좋아져 교류가 활발했다.
② 세종 때 4군 6진이 설치되어 오늘과 같은 국경선이 확정되었다.
③ 여진족에 대해 특별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④ 화약 무기를 개발하여 선박에 장착 하는 등 왜구 격퇴에 노력을 기울였다.
⑤ 류큐에 불경, 유교경전, 범종 등을 전해주어 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답 ③

조선의 기본 외교 정책은 사대교린(事大交隣), 즉 큰 나라는 섬기고 이웃한 나라와는 교류한다는 외교이다. 특히 여진이나 일본은 교린외교로 화전양면(和戰兩面)정책, 즉 회유책과 강경책을 동시에 전개하였다.

■ 2010년 선우한국사 이론편p 328 여진과의 관계 내용

6. 역사의 의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거였던 사실(사실로서의 역사),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② 사실로서의 역사는 시간적으로 현재까지 일어난 모든 과거의 사건을 말한다.
③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역사가가 이를 조사·연구해 주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④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역사가가 선정하고 연구한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⑤ 사실로서의 역사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이다.

답 ⑤

틀릴 이유가 없는 문제이다. 사실(事實)로서의 이유는 객관적 의미의 역사이다.

■ 2010년 선우한국사 이론편 p 26 내용

7. 다음 중 청동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청동으로 된 도끼 등의 공구가 출토되었지만 농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 ② 움집의 구조는 장방에서 둥근 모양으로 변천되었다.
- ③ 비파형 동검은 만주지방에서만 발견되었다.
- ④ 웅기 서포항 유적에서 발견된 호신부를 통해 당시 주술 신앙에 대해 알 수 있다.
- ⑤ 돌곽무덤과 움무덤을 사용하였다.

답 ①

- ② 움집의 구조는 둥근 모양에서 장방으로 변천되었다.
- ③ 비파형 동검은 만주와 한반도에서 발견되었다.
- ④ 웅기 서포항 유적은 신석기 유적지이다.
- ⑤ 돌곽무덤 [돌덧널무덤] 과 움무덤 [토광묘] 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북한 고고학 용어이다. 움무덤 [토광묘] 은 초기 철기때 출현하였다.

■ 2010년 선우한국사 이론편 p 52 청동기와 철기 시대 내용

8. 다음 보기에 제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구릉과 넓은 못이 많아서 동이 지역 가운데서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토질은 오곡을 가꾸기에는 알맞지만 과일은 생산되지 않았다. 사람들의 체격이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 용맹하며 근엄하고 후덕하여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다.

(나)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평원과 연못이 없어서 계곡을 따라 살며 골짜기 물을 식수로 마셨다. 좋은 밭이 없어서 힘들여 일구어도 배를 채우기는 부족하였다. 사람들의 성품은 흉악하고 급해서 노략질하기를 좋아하였다.

- ① (가) - 수렵 사회의 전통으로 제천행사가 12월에 있었다.
- ② (가) - 서옥제가 있었다.
- ③ (나) - 특산물로 말, 주옥, 모피 등이 유명했다.
- ④ (나) - 단궁이라 불리는 활,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했다.
- ⑤ (가), (나) - 연맹 왕국의 단계에서 멸망하였다.

답 ①

(가)는 부여, (나)는 고구려

- ② 고구려, ③ 부여, ④ 동예, ⑤ 부여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하였고 고구려는 고대국가(중앙집권국가)단계에서 멸망하였다.

■ 2010년 선우한국사 이론편 p 67~68 부여, 고구려 내용

9. 신라의 영토가 확장된 시대 순이 바른 것은?

㉠ 금관가야	㉡ 한강 유역	㉢ 우산국
--------	---------	-------

- | | |
|-------------|-------------|
| ① ㉠ - ㉡ - ㉢ | ② ㉠ - ㉢ - ㉡ |
| ③ ㉢ - ㉠ - ㉡ | ④ ㉢ - ㉡ - ㉠ |
| ⑤ ㉡ - ㉠ - ㉢ | |

답 ③

㉢지증왕 - ㉠ 법흥왕- ㉡ 진흥왕

서울시 문제는 고대국가의 사건 순을 상당히 난도있게 내는데 이 문제는 난이도 하로 출제하여 누구나 쉽게 답을 낼 수 있었다.

■ 2010년 선우한국사 이론편 p 108 도표 내용

10. 보기의 사실을 근거로 추론한 내용 중 옳은 것은?

(ㄱ) 신문왕 7년(687) -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ㄴ) 신문왕 9년(689) - 내외관의 녹읍을 혁파하였다.
 (ㄷ) 성덕왕 21년(722) -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ㄹ) 경덕왕 16년(757) -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지급하였다.

- ① 신문왕 때 귀족 세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 ② (ㄱ), (ㄴ)로 인해 국가 재정이 보다 약화되었다.
- ③ (ㄷ)의 지급으로 국가의 역역(力役) 파악이 강화되었다.
- ④ (ㄹ)의 실시로 귀족 세력의 입지가 축소되었다.
- ⑤ 토지 지배를 둘러싼 대립이 국가와 농민 간에 있었다.

답 ③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는 백성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요역, 즉 역역(力役) 파악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 2010년 선우한국사 이론편 p 145 토지제도의 변천 내용

11. 다음과 같은 정치 형태가 나타난 시기의 상황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조가 죽고 순조가 12세의 나이로 즉위하자 정조의 유탁으로 김조순이 그의 딸을 왕비로 들여, 순조를 보필하게 되면서 안동김씨에 의한 세도정치가 시작되어 중앙의 요직은 모두 이들 일족이 독점하였다. 그 뒤 조만영의 딸이 익종의 비가 되어 헌종을 낳자 헌종 때는 풍양조씨에 의한 세도정치가 15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김조순의 일문인 김문근의 딸이 철종의 비가 되면서 다시 안동 김씨가 정국을 주도하였다.

- ① 봉당의 교체가 급격히 진행되는 환국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 ② 군역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균역법이 시행 되었다.
- ③ 비변사가 핵심 정치 기구로 자리 잡았다.
- ④ 청에 대한 적개심으로 북벌 정책을 추진하였다.
- ⑤ 인사관리를 통해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 하였다.

답 ③

지문은 19세기 세도정치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 시기 세도가들은 비변사와 5군영을 장악하였다. ①, ⑤ 숙종 ② 영조 ④ 효종때 상황이다.

■ 2010년 선우한국사 이론편 p 434 내용

12. 밑줄 친 그가 추진한 정책 중 옳지 않은 것은?

나라에 제도로서 인정(人丁)에 대한 세를 신포(身布)라고 하였는데 충신과 공신의 자손에게는 모두 신포가 면제되었다. 이 법이 시행된 지도 이미 오래 됨에 택없이 면제된 자가 매우 많았다. 근래에 와서는 무릇 사족이란 자는 모두 신포를 바치지 않고, 그 모자라는 액수를 평민에게 덧붙여 징수하여 보충하고 있었다. 그는 이를 수정하고자 동포(洞布)라는

법을 제정하였다. 가령 한 종리에 2백 호가 있으면 매호에 더부살이 호가 약간씩 있는 것을 정밀하게 밝혀내어 계산하고, 신포를 부과하여 고르게 징수하였다. 이 때문에 예전에는 면제되던 자라도 신포를 바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 박제형, 근세 조선 정감 -

- ① 정치기구를 재정비하기 위해 의정부의 기능을 부활시켰다.
- ② 전통적 공동조직과 미풍양속을 계승한 향약을 강화했다.
- ③ 『대전회통』, 『육전조례』 등의 법전을 편찬했다.
- ④ 군정을 바로 잡기 위해 호포제를 실시했다.
- ⑤ 환곡을 개혁하고 사창제를 실시했다.

답 ②

지문은 대원군의 호포제(동포제)에 대한 설명이다.

② 대원군은 향약 강화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서원을 대거 정리하였다.

■ 2010년 선우한국사 이론편 p 517 사료 제시, 516 대원군의 개혁 내용

13. 고종 때 시행한 군비 증강 사업을 실시한 순서로 바른 것은?(복원순서와 문제 애매)

이 문제는 해군제 도입 때문에 참으로 애매한 문제가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제국기의 해군제는 시도만 하였을 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때문에 이 애매한 해군제 도입이란 시점은 출제자가 의도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경우이다. 이런 정확하지도 않은 사건은 교수의 관점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과거 고시문제에서 여기서 제발 떨어지라고 내는 애매한 문제 유형이다.

- (1) 1903년 고종이 해군 창설 지시를 내리고 양무호를 구입(1904.7)하여 해군 창설의 신호탄을 마련한 점을 해군제 도입으로 본 경우의 답 : 무관학교 창설(1898) - 원수부 창설(1899) - 징병제 실시(1903.3) - 해군제 도입(1903. 4)
- (2) 1883년 조선의 기존 수군체제를 대신하여 부평에 통제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연해방영(畿沿海防營)을 설치한 시점을 근대적 해군체제의 개편으로 보고 이를 해군제 도입으로 본 경우의 답 : 해군제 도입(1883) - 무관학교 창설(1898)- 원수부 창설(1899)- 징병제 실시(1903.3)

14. 안중근 의사가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던 해의 사건이 아닌 것은?

- ① 유인석 등이 13도 의군 결성
- ② 조선총독부 설치
- ③ 105인 사건
- ④ 헌병경찰제 실시
- ⑤ 경학사 및 신흥강습소 설치

답 ⑤

2010년은 안중근 의사 순국 100년이 되는 해라 매스컴에서 크게 다룬 주제라 1910년이라는 것은 쉽게 파악했을 것이다. ⑤ 신흥강습소 설치 1911년이다.

그러나 그해 일어난 사건을 찾는 과정에서 1910년 12월에 시작되어 근 2년간 전개되었던 105인 사건 때문에 헷갈렸을 것이다. 사실 1910년 12월에 일어난 안악사건을 확대하여 1911년 9월에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했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신민회 회원을 비롯한 민족지사들을 검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교수들마다 105인 사건을 1910년 안악사건으로 보기도 하고, 안악사건과 구별하여 1911년으로 보기도 한다. 이 문제는 결국 전적으로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답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하는 불합리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경학사와 신흥강습소 역시 사실 1910년 4월과 1911년 4월이라는 두 설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911년으로 보는 경향이 우세하다. 결국 객관식 문제는 문제에서 결정적인 오타를 내지 않는 한 복수정답이 되기가 어렵다.

■ 2010년 선우한국사 이론편 13도의군(p662), 신흥강습소(p642), 105인사건(p616)

15. 남북한의 통일 외교 정책 추진과 관련된 내용 중 옳은 것은?

- ① 1972년에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 원칙에 합의하였다.
- ② 1990년대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한은 북방에 대한 외교 정책을 포기했다.
- ③ 평화통일의 3대 원칙에 따라 남북 간 화해·불가침 협정 등이 채택된 것은 1988년의 7·7 선언이다.
- ④ 1961년 5·16 직후 중립화 통일론이나 남북협상론, 남북 교류론 등 통일 논의가 제기되었다.
- ⑤ 1982년 북한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은 1민족 2국가 2체제를 목표로 한다.

답 ①

이 문제는 출제자의 미숙함이 보여진다. 현대사의 중요한 통일정책을 제시하면서 가장 익숙하고 많이 출제된 7.4남북성명을 맞는 답으로 하여 별로 깊게 공부하지 않아도 답을 맞출 수 있었다.

■ 2010년 선우한국사 이론편 p 745~746 통일정책내용

16. 조선시대 사회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농민의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 지방자치적으로 의창과 상평창을 설치했고, 환곡제를 실시해 농민을 구제했다.
- ② 범죄 중 가장 무겁게 취급된 것은 반역죄와 강상죄였다.
- ③ 의료시설로 혜민국, 동·서대비원, 제생원, 동·서활인서 등이 있었다.
- ④ 재판에 불만이 있을 때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른 관청이나 상부 관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 ⑤ 농본 정책을 실시해 양반 지주들의 토지 겸병을 억제하고, 농민의 토지이탈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답 ①

환곡을 국가가 실시한 제도이고 지방자치적으로는 사창이 실시되었다.

■ 2010년 선우한국사 이론편 p346 사회정책 내용

17. 조선 전기에는 고려 시대의 농업 기술이 개량되면서 생산력이 향상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밭농사, 조·보리·콩의 2년 3작이 널리 행해졌다.
- ② 시비법이 발달해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 ③ 쟁기·낫·호미 등의 농기구가 개량되었다.
- ④ 목화의 재배가 확대되어 의생활이 개선되었다.
- ⑤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벼,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답 ⑤

이양법의 전국적 확산은 조선후기 이후의 일이다. 이 역시 정말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이다.

■ 2010년 선우한국사 이론편 p 366 농업기술의 발달 내용

18. 다음 중 군사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임진왜란 때 왜군의 조총에 대항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나.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 ①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 ② 지방 방어 체계의 강화를 위해 설치되었다.
- ③ 양반에서 노비에 이르기까지 편제되었다.
- ④ 장기간을 근무하고 일정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였다.
- ⑤ 병농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의무병제에 따라 편성되었다.

답 ④

조선후기 중앙군 5군영 중 훈련도감에 대한 설명이다. 훈련도감은 장변급료병, 즉 장기간 근무하면서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였다.

■ 2010년 선우한국사 이론편 p 414 5군영 내용

19. 다음 중 조선 시대 봉당정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훈구와 사림의 대립으로 봉당정치가 출현하였다.
- ② 중종이 사림세력을 대거 등용해 봉당이 출현하였다.
- ③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세력이 정계에 진출해 봉당이 출현하였다.
- ④ 봉당은 학문의 경향과 상관없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 결집하였다.
- ⑤ 사림 세력이 동인·서인으로 분열돼 봉당이 출현하였다.

답 ⑤

- ① 훈구와 사림의 대립으로 사화(士禍)이다.
- ② 선조때 사림세력을 대거 등용해 봉당이 출현하였다.
- ③ 조광조는 봉당정치가 아니라 기묘사화에 연루되었다.
- ④ 봉당은 학문적 성향과 정치적 이념에 따라 결집하였다.

■ 2010년 선우한국사 이론편 p422 봉당정치 내용

20. 다음 중 조선후기의 사회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향촌사회에서는 수령의 권한이 약화되었고, 관권을 맡아보던 향리의 역할도 비례하여 축소되었다.
- ② 정조 때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 서얼 출신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어 능력을 발휘했다.
- ③ 유교적 명분론이 설득력을 잃어가자 도참 등의 예언 사상이 유행했다.
- ④ 양반 중에는 토지를 잃고 몰락해 전호가 되거나 임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 ⑤ 지배층의 압제에 대한 농민의 저항은 벽서, 패서의 형태에서 점차 농민 봉기로 변화되어 갔다.

답 ①

①향촌사회에서는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관권을 맡아보던 향리의 역할도 상대적으로 커졌다.

■ 2010년 선우한국사 이론편p 464 향촌사회 재편 내용